

북스

Books

이 세상 마지막 럭셔리 미술품 컬렉션 가이드 '앤디워홀 손 안에 넣기'

아트딜러이자 미술가인 저자 리차드 폴스키는 저서 '앤디워홀 손 안에 넣기'(원제 I Bought Andy Warhol)에서 "미술품이야말로 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럭셔리다"며 컬렉션이 지닌 매력을 강조하고 있다. 비싼 차는 누구나 살 수 있지만 미술품 컬렉션의 세계에서는 한 점의 작품을 오직 한 사람만이 소장하는 '사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86년 앤디워홀의 광팬이었던 그는 앤디워홀의 그림 한 점을 소장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10만달러를 비축한다. 그리고 3개월 후 앤디워홀이 세상을 떠나자 자신을 매혹시킨 워홀의 '자화상'을 손에 넣기 위해 기나긴 여정을 오른다.

책은 저자가 앤디워홀의 작품을 소장하기까지 12년간 겪은 에피소드와 미술가, 딜러, 경매장, 컬렉터들의 숨은 이야기 등을 충실하게 담아냈다.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술품 컬렉션에 대한 가이드로 유용하다.

〈미음신책·1만7천원〉

앤디워홀의 작품이 손에 넣기 위해 기나긴 여정을 오른다. 앤디워홀의 작품을 소장하기까지 12년간 겪은 에피소드와 미술가, 딜러, 경매장, 컬렉터들의 숨은 이야기 등을 충실하게 담아냈다.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술품 컬렉션에 대한 가이드로 유용하다.

〈미음신책·1만7천원〉

이념형 인간의 종말과 거듭나기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63·사진)씨가 남과 간첩이었던 장기수의 삶을 그린 장편소설 ‘인간 연습’을 발간했다.

10부작 대하소설 ‘한강’(해냄 펴냄) 이후 4년 만의 신작소설로 문예 계간지 ‘실천문학’을 봄·여름호에 게재된 원고를 단행본으로 묶었다. 20여년 동안 세 편의 대하소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에 매달려 온 저자가 한 권짜리 소설을 발간 한 것은 1983년 ‘불놀이’(해냄 펴냄) 이후 23년 만이다.

주인공 ‘윤희’는 6·25 전쟁 후 월북한 뒤 남과 간첩으로 내려왔다. 이를 만에 체포돼 30년 간 복역한 인물이다. 강제로 전향했지만 속으로는 사회주의 사상을 버리지 못한 비전향자다.

소설은 윤희의 ‘이념적 생애’인 장기수 ‘박동건’이 소련의 붕괴에 절망해 세상을 떠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박동건은 사회주의의 모태 격인 소련이 ‘저질러’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윤희는 박동건의 죽을 이후 교도소에서 만난 운동권 출신 ‘강민규’가 던져주는 번역 일을 해가며 하루하루를 때운다. 단 하나 희망이라곤 구멍가게에서 먹

인간 연습 조정래 지음

을 것을 흡치다 주인에게 걸러 자신이 구해준 경희·기준 남매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정보와 형사가 짐짓주는 피곤함도 이들 남매와 만날 때면 짝 사라진다.

윤희는 강민규의 권유로 수



남과 간첩 장기수 삶 통해 새로운 인간의 조건 탐색

기를 발표하고, 이를 계기로 알게 된 보육원장과 편지를 주고 받게 된다. 그 자신도 나중엔 경희·기준 남매와 함께 아예 보육원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위한 ‘새 삶’을 산다. 윤희는 아이들과 함께 ‘인간 연습’의

마무리를 짓게 된다.

저자가 생각하는 희망은 아이들이 있다. 윤희의 말년을 아이들과 함께 하도록 한 것도 사상을 넘어서는 미래 지향의 희망인 것이다. 최근 저자가 ‘앞으로 동화를 쓰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일맥 상통한다.

저자가 소설을 통해 그리고 있는 사회주의의 몰락은 냉철하다. 끊임없이 근본적 원인을 사유하는 윤희의 생각을 빌려 저자는 “인간의 이성이 본능을 이길 수 없고, 그 ‘인간의 한계’가 사회주의 몰락의 절대 원인은 아닐까?”라고 말한다. “마르크스주의란 기본적으로 밥 먹는 철학인데도 그것을 실현시키지 못해 결국 스스로 몰락”했기 때문이다.

“내 문학에서 분단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소설을 지었다”는 저자의 말처럼 전작들이 근현대사를 재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작품은 분단의 고통을 겪은 한 개인의 시각을 통해 사회주의 몰락 이후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실천문학사·9천5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수집품 통해 본 60여개국 삶의 스타일

전문수집가 김민석(51·주)솔로몬 대표)씨는 1년여간 8개월을 외국에서 보낸다. 수집가로 살아온 27년 동안 그가 방문한 나라는 70여개국, 비행기 마일리지는 300만 마일에 이른다. 1980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막의 장미석(石)’을 손에 넣은 것을 필두로 그는 각국을 훑으며 예술품 등을 모으기 시작했다. 현재 소장품은 10만여점을 넘어섰다.

김씨가 펴낸 ‘세계의 모든 스타일’은 세계 각국

세계의 모든 스타일 김민석 지음

을 대표하는 수집품들을 통해 각 나라의 독특한 삶의 ‘스타일’을 들여다본 책이자 그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책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로 나눠 모두 60여개국의 스타일을 소개하고 있다. 각국을 대표하는 400여점의 ‘물건’ 들은 각각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가장 눈길을 가는 부분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접하기 어려웠던 아프리카에서 간직한 수집품들. 저자 스스로가 수집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친 곳이라고 밝힌 탄자니아를 비롯해 에티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의 강렬하고 다양한 예술품들은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

저자는 수집을 위해 돈을 벌었고, 돈을 벌면 저축하듯 20%는 꼭 수집하는 데 쓰고 있다. 그가 유연히 머물게 된 탄자니아의 미술관에서 백인 노부부에게 매월 1천달러씩 2년동안 돈을 보내주기로 하고 소장품을 몽땅 구입한 사연 등 ‘물건’을 손에 넣기까지의 다양한 에피소드도 읽는 재미를 준다.



페루 모치카 스타일의 전신상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책이 갖는 가장 큰 매력은 ‘갈굼함의 상징’(일본), ‘바다를 향한 도전’(스웨덴), ‘자연스런 개방문화’(베네룩스 3국), ‘화려한 가문의 유력’(이탈리아) 등 각국의 이미지에 걸맞는 400여점의 수집품을 생생한 컬러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디자인하우스·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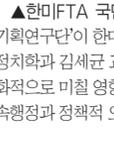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손잡이가 있어 손으로 들고 다니는 베네치아 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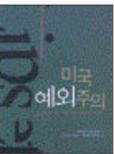
▲나만의 남도 여행=‘전라도 토박이’ 여행 전문가 배인철이 펴낸 ‘남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이라는 부제가 붙은 여행기. 영암, 강진, 해남, 진도, 완도도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각종 체험과 역사·인물·문화·맛 기행을 고스란히 녹여냈다. 〈한일미디어·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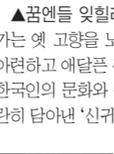
▲한미FTA 국민보고서=‘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이 한미FTA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대 정치학과 김세교 교수 등이 이번 협상의 추진과정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미칠 영향, 세계 FTA 시대에 대해 들여다 보고 정부의 졸속행정과 정책적 오류를 짚어낸다. 〈그림비·2만5천원〉



▲한국 역사의 미인=중국의 4대 미인 서시, 왕소군, 초선, 양귀비. 우리나라에도 이들을 버금가는 미인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숨겨진 미인들을 조명한다. 저자 이수광은 각 사대의 문화와 생활상까지 다루며 역사를 통해 본 한국 역사를 서술한다. 〈영림커뮤니케이션·1만2천원〉



▲미국 예외주의=저자 세미우어 마틴 립트는 미국을 모방한다고 해서 미국처럼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미국이 독특한 기원과 역사 발전 과정, 정치 및 종교 제도로 인해 일반 국가들과는 다르다는 ‘미국 예외주의’를 분석한다. 〈후미니타스·2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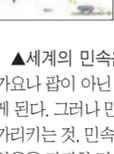
▲꿈엔들 잊힐리아=원로 학자 김철규 교수가 이제는 사라져 가는 옛 고향을 노래한다. 시골길, 장터, 징검다리, 물레방아 등 아련하고 애달픈 추억의 이야기들을 영상과 함께 담았다. 고향은 한국인의 문화와 뿌리라고 말하는 저자는 한국인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아낸 ‘신귀거래사’를 노래한다. 〈호영·1만3천500원〉



▲라비린토스=영국작가 케이트 모스의 화제작이다. 각각 다른 세명의 수호자에게 맡겨져 온 수의 책, 약의 책, 말의 책. 아버지에게 맡겨진 책을 맡은 알리아스는 마지막 한 권을 뺏으려는 안니 오리앙과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펼치게 된다. 〈해냄·8천500원〉



▲하느님... 왜? =평생 이웃 사랑을 실천해 ‘살아있는 성자’로 불리는 프랑스의 피에르 신부. 그가 사제의 성(性)과 결혼, 여성의 사제 서품, 동성애자의 결혼과 입양 등 그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주제에 대해 과감히 접근한다. 〈셋터·8천500원〉



▲세계의 민속음악=민속음악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듣는 가요나 팝이 아닌 월드 뮤직, 제3세계의 대중 음악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민속음악은 월드 뮤직의 뿌리가 되는 전통음악을 가리키는 것. 민속음악과 평론가 박창호가 각 민족이 이어온 소리의 완성을 간직한 민속 음악을 다룬다. 〈협양사·1만6천500원〉



▲2006 올해의 추리소설=한국추리작가 협회가 매년 주관하는 책으로 올해 표제작은 류성희의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이다. 춤추는 여인 사건과 함정, 복선이 보이는 재미를 자극한다. ‘차 바퀴 밑의 인성’ ‘스튜디오 뽕’ 등 짧지만 흥미로운 9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산디솔·9천500원〉

대인동삼일부동산
☎(대)223-1140, 210-1140, 210-1140-2522
(중)223-1140, 210-1140, 210-1140-2522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시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물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건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전공인중개사
☎571-4114, 111-019, 684-2584
(광주광역시 광주동 1층)

상가부지

- 최신상업부지
- 최신상업부지 3,000평 x 280만 원 - 주상복합, 대형아파트용, 2차선 도로
- 최신상업부지 CGV부지 1,260평 x 380만 원 - 1차선, 2차선 도로
- 최신상업부지 2차선 도로부지 680평 x 280만 원 - 1차선, 2차선 도로, 2차선 도로
- 최신상업부지 2차선 도로부지 1,300평 x 360만 원 - 1차선, 2차선 도로, 2차선 도로
- 최신상업부지 2차선 도로부지 1,300평 x 360만 원 - 1차선, 2차선 도로, 2차선 도로
- 최신상업부지 2차선 도로부지 1,300평 x 360만 원 - 1차선, 2차선 도로, 2차선 도로
- 최신상업부지 2차선 도로부지 1,300평 x 360만 원 - 1차선, 2차선 도로, 2차선 도로

광주교교 토지

- 나주 노안 왕촌리 1040평 x 6.5만원
- 나주 노안 왕촌리 1040평 x 6.5만원
- 전남 404평 x 1.5만원, 광주, 광주부지

권역별 권역구, 담양, 정읍 토지구별

상가임대

- 상가임대 2차선 도로부지 16평 5300만원

인애공인중개사
☎ 011-642-0391

Hits 집 임대

- 고급Hits 집하실분 환영
- Hits 집으로 성공하실분
- 1층 2층 130평 택지 42석
-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 부근
- 임대내용은 Hits 보고 상담

Hits 집 건물매매

- 고급Hits 집하실분 환영
- 대90평 연건평 388평
- 6층건물 3층, 4층, 5층, 6층 임대완료
- 1층, 2층 고급Hits 집 130평 택지 42석(연회석 완비)
-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 부근
- 상무지구를 주목하라
- 행정도시, 금융도시, 공공기관 집중
- 매도가 건물 보고 가격 결정 상담

동부부동산건설(주)
투자상담 ☎ 681-0453, ☎ 010-4628-5454
(금호동 미재우체국 옆)

- 광주지역 -

- 현대 그린CIC부지 5,000평 - 처량정권 안양/보통 기능/수원-정면도로공사
- 동도-공정, 공업연습, 자동차 학원 등 부지
- 매매가: 700만 원

광주 동부부동산

- 광주 동부부동산 2차선 도로부지 1,300평 x 360만 원
- 광주 동부부동산 2차선 도로부지 1,300평 x 360만 원
- 광주 동부부동산 2차선 도로부지 1,300평 x 360만 원
- 광주 동부부동산 2차선 도로부지 1,300평 x 360만 원

광주 동부부동산

- 광주 동부부동산 2차선 도로부지 1,300평 x 360만 원
- 광주 동부부동산 2차선 도로부지 1,300평 x 360만 원
- 광주 동부부동산 2차선 도로부지 1,300평 x 360만 원
- 광주 동부부동산 2차선 도로부지 1,300평 x 360만 원

하이링크 건설링
☎ (대)383-5221, ☎ 011-609-5221
(상무지구 입구 - 구.상무대입구)

▶ 구해드립니다
병원, 학원, 공장, 아파트, 교회, 골프연습장
주유소등 각종투자용 부동산을 구해드립니다.

▶ 팔아드립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및 금매물건을 팔아드립니다.

<p>● 병원, 학원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무지구 120평 평당 1,000만원 상업부지 600평 평당 950만원 상무지구 670평 평당 900만원 	<p>● 창고및회사사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북동 상복 770평 평당 150만원 마북동 상복 400평 평당 250만원 상무지구 500평 평당 670만원
<p>● 식당 및 오락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천지구 180평 평당 180만원 평당 220만원 서구 2,000평 매매가 12억 	<p>● 공장 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 4,000평 평당 650만원 마북동 상복 1,000평 평당 145만원 상가용 부지 1,200평 평당 350만원
<p>● 건물 매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무지구 보종금 3억 700만원 상무지구 보종금 10억 월세 2,500만원 매매가 58억 	<p>● 땅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무지구 1,300평 평당 900만원 대동동 2,300평 평당 120만원 동원동 보종금 220평 평당 320만원
<p>● 부동산투자(컨설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억 투자 월2억 수입 70억 투자 월 1억5천만원 수입 	<p>● 골프연습장적합한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92,000평 평당 195만원

※ 부동산 광고를 통해 매도를 원하시면 전화주십시오

★ 24시간 물건접수 및 상담형 ★
전화상담 011-609-5221 팩스접수 383-5221
메일접수 sechulgi@hanmail.net

전원공인중개사
www.전원중개사.com
☎ 010-4629-0899
☎ 010-4629-0899
☎ 010-4629-0899

토지매도

- 광주 동부부동산 2차선 도로부지 1,300평 x 360만 원
- 광주 동부부동산 2차선 도로부지 1,300평 x 360만 원
- 광주 동부부동산 2차선 도로부지 1,300평 x 360만 원
- 광주 동부부동산 2차선 도로부지 1,300평 x 360만 원

상가매도

- 상가매도 2차선 도로부지 16평 5300만원

주상권 매매

- 주상권 매매 2차선 도로부지 16평 5300만원

★ 부동산 대모집(소액 대 환영) ★
★ 지리산 입원 펜션부지 대모집 ★